

# 요가복 치수 ‘들쭉날쭉’... 흡수·건조 등 기능성도 큰 차이

**소비자원** 11개 요가복 제품 시험 여성형 M 사이즈 최대 11.5cm 차이 신장회복률 전체 제품 양호 이상

홈트레이닝이 유행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조거형 요가복의 흡수나 건조속도 등 기능성이 제품별로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요가복 8개 브랜드 11개 제품(▲젝시믹스 ▲롤루레몬 ▲뉴발란스 ▲안다르 ▲몰라웨어 ▲스컬피그 ▲STL 8개)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결과를 보면,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성능인 흡수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새제품 상태일 때와 5회 세탁 후 각각 측정된 결과, 몰라웨어(에어 컴피 조거 레깅스), 젝시믹스(미디움페더 인밴드 조거 팬츠) 2개 제품은 세탁 전·후 모두 땀을 흡수하는 속도가 빨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요가복’ 비교정보 생산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또 땀이나 물이 건조되는 속도인 건조속도는 몰라웨어(에어 컴피조거 레깅스), 스킨피그(액티브 벤츄리 조거팬츠), 젝시믹스(미디움페더 인밴드 조거 팬츠) 3개 제품이 세탁 전·후 상대적으로 빨리 건조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안다르(에어프레시 조거핏 레깅스), 젝시믹스(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라이트 조거레깅스) 2개 제품은 물을 60초 이내에 흡수하지 않아 건조속도 시험이 불가능했다.

늘어났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기능인 신장회복률은 시험대상 전체 제품

이 양호 이상 수준이었다.

특히, 롤루레몬(Align HR 조거), 안다르(에어프레시 조거핏 레깅스), 몰라웨어(액티브 컴피 조거 팬츠), 안다르(에어무스 조거핏 레깅스) 4개 제품은 새제품 상태와 5회 세탁 후에도 상대적으로 신장회복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이 외부 힘에 의해 쉽게 터지거나 올 당겨짐, 보풀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한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했다.

복합강도의 경우 뉴발란스(하이텐션 조거 레깅스), 몰라웨어(에어 컴피 조거 레깅스) 2개 제품은 엉덩이와 측면(허리~발목) 부위의 봉제가 모두 튼튼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라웨어(액티브 컴피 조거 팬츠)는 물에 젖은 상태에서 색상이 묻어나는지 확인하는 물견뢰도에서 권장기준(4급 이상)보다 미흡했다.

마찰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지 않는 정도를 보는 마찰견뢰도 시험결과에서는 안다르(에어무스 조거핏 레깅스), STL(STL NY 벳살커리 퀵드라이 조거 팬츠), 젝시믹스(미디움페더 인밴드 조거 팬츠) 3개 제품이 권장기준(건조건 4급 이상, 습조건 3급 이상)보다 미흡했다.

스컬피그(액티브 벤츄리 조거팬츠), 젝시믹스(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라이트 조거레깅스) 2개 제품은 혼용물을 영문으로 표시하거나 제조사명을 표기하지 않는 등 ‘가정용섬유제품 표시기준(안전기준준수부속서1)’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제품은 모두 동일 사이즈(여성용 M)였으나 총길이가 제품별 최대 11.5cm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돼 제품 선택 시 제품 치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희정 부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전체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공항공, 공기업 최초 장애인인권상 수상

전용 패스트 트랙 등 이동권 증진 앞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일 여의도에서 열린 제24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공기업 최초로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 장애인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현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 및 기관을 발굴하고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9년 시작되었으며,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에서는 매년 인권실천, 국회의원, 기초자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래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공항 시설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세계

유수 공항 가운데 배리어프리 선도 공항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대표적으로 공사는 교통약자 전용 패스트 트랙을 구축하여 수속절차를 10분 내외로 간소화하고 세계 공항 최초로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로봇, 자율주행 전동차, 카트로봇 등 첨단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입국 교통약자를 위한 수하물 이동 서비스인 ‘이지픽업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약자, 인권활동가,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배리어프리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교통약자의 여행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보행보조기 지급사업을 단일 기관 최대 규모로 6년 이상 지속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기보, 11기 벤처캠프 데모데이 개최

# “신생벤처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성장 지원”

엑셀러레이터, 투자관계자 등 참가 “벤처캠프 참여기업 지원 더욱 확대”

기술보증기금이 기보벤처캠프를 통해 스타트업 추가 육성에 나섰다.

기보는 기보벤처캠프 프로그램으로 발굴·육성한 스타트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1기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 행사엔 기보가 발굴한 기술혁신창업기업 56개사 중 우수 참여기업 14개사와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투자관계자가 참가했다. 참여기업 14개사는 개별 IR을 통해 각 기업을 홍보했으며 기업IR 영상은 기보 유튜브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보벤처캠프’는 신생벤처기업을 발굴해 집중 보육하고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투자관계자를 연결해 성공창업을 견인하고 좋은 일자



제11기 기보벤처캠프 데모데이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 기보는 축적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혁신창업 기업을 스타벤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기보는 참여기업에 대해 ▲멘토링·교육·컨설팅·네트워크 지원 등 엑셀러레이팅 ▲특허 및 사업화 촉진 전략·기술거래·지원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지원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원 ▲보증비율 95% 적용 및 보증료 0.2%P 감면 ▲상위 25% 이내의 우수참여기업에 대해 최

대 15억원의 보증한도 부여와 기술평가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보 김영갑 이사는 “기보벤처캠프는 새 정부의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에 맞춰 혁신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될성부른 신생벤처기업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해수부 “내년부터 목포항 등 노후화 부두시설 새 단장”

전국 부두시설 230곳 안전성 검토 22곳 개축, 65곳 유지·보강 계획

내년부터 목포항 여객부두 등 전국 22개 노후화된 부두시설이 새 단장을 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노후 국유 부두시설 230곳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한 결과, 22개 부두시설을 개축하고, 62개 부두시설을 유지·보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초부터 22개월 동안 230개 노후 부두를 대상으로 최신 설계 기준과 구조해석기법을 적용해 사전안전성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목포항 여객부두 등 22개 부두는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인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개축하고, 62개 부두는 유지·보강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이용객이 많은 목포항 여객부두(87억원)와 군산항 4·5부두(134억원)에 총 221억원을 투입, 내년부

터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25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김규섭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1990년대 확충된 항만시설은 그간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왔으나, 노후화로 인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개축 및 유지·보강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고용부-이통4사 ‘안전보건 의식 향상’ 캠페인 전개

4개사 업무차량 안전보건 슬로건 부착

고용노동부와 SKT, KT 등 통신 4개사가 업무용 차량을 활용한 ‘대국민 안전보건 의식 향상’ 공동 캠페인을 벌인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일 ‘통신 4사와 함께하는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동참한다. 이들 4개사는 이달부터 업무용 차량 총 3500대에 안전보건 관련 슬로건을 부착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6개월 이상 지속할 예정이다.

캠페인 슬로건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과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등이다. /세종=원승일 기자